

# 코로나19 관련 주요 해외동향(12월 1주차)

국가	주요 동향	
미국	농식품 수출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 FDA는 Food Traceability List로 지정한 식품을 제조, 보관하는 업체에 ‘추적기록관리 조건’을 추가 부과하는 규정안에 대해 ‘20년 12월까지 공청회를 거친 후 1월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최종 검토 및 수정을 거쳐 확정된 법안으로 발표 예정 임.</li> <li>* 자료원 : <a href="http://www.federalregister.gov">www.federalregister.gov</a></li> <li>○ 美 FDA는 식품 포장재에 필수기재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라벨링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라벨링 예외 청원에 대하여 추가 정보를 모집하기 위해, 2020년 10월 28일 연방공보에 공지를 게재하고, 2020년 12월 28일까지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임</li> <li>* 자료원 : <a href="https://www.regulations.gov/document?D=FDA-2014-N-1030-0010">https://www.regulations.gov/document?D=FDA-2014-N-1030-0010</a></li> </ul>
	유통·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속 추수감사절 온라인 쇼핑 역대 최대, 작년 42억 달러보다 21.5% 급증한 51억 달러로 집계(11.27, CNBC)</li> </ul>
미국	바이어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사) 물류 운송이 지연되며 김치 등 주요 취급 품목들의 소비자 수요에 맞춘 공급에 차질 발생</li> <li>○ (O사) 코로나19 장기화로 라면 소비자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물량 확보 및 신제품 발굴 노력 중</li> <li>○ (Y사) 한국산 팽이버섯의 리콜에 따른 현지 통관 강화로 인한 공급 물량 부족으로 중국계 바이어들이 Seafood Mushroom(팽이버섯보다 조금 굵은 모양의 버섯)이라는 버섯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한국산 팽이버섯 대체 상품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여, 한국산 팽이버섯 수출 감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li> <li>○ (K사) 중국 선사들의 물류 배송비 인상과 저가 중국산 배의 품질 개선으로 한국산 신고배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li> <li>○ (H사1)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HMR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제품 개발을 통한 수입 추진 중(떡볶이 제품 등)</li> <li>○ (H사2) 코로나로 인한 수입 및 유통은 지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에서 선적 일정을 잡기 어렵고 최근 환율하락으로 애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국의 새로운 대중국 정책의 변화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음. 전문가들은 미·중 간의 긴장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li> <li>○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20만명에 육박하며 빠른 확산세를 보이며 일부 주들을 중심으로 락다운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물, 휴지를 비롯한 식료품 사재기가 재현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음</li> <li>○ 코로나19로 항공사들의 미국 노선 운영사 및 횡수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11개 항공사, 주349회 → 6개사, 주94회)</li> <li>○ LA카운티 부분적 자택대피령 시행 계획 발표(1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이외의 모임 금지, 필수 업종 비즈니스 실내 수용인원 35%로 제한, 비필수 업종 실내 수용인원 20%로 제한, 야외 소매업소 고객 수용인원 50%로 제한, 사무실, 극장 등 일부 비필수 업종 폐쇄 유지 등</li> </ul> </li> <li>○ 캐나다 온타리오주 일일 코로나 확진건수 1천 8백건 이상 발생, 코로나가 강타한 이래로 최대 확진 기록(11.27, cbc.ca)</li> <li>○ 캐나다 식료품업체 러블로(Loblaw), 지난 3분기 온라인 매출 175% 증가 및 온라인 쇼핑 급증으로 1월부터 자율주행 배송 시작(11.23, forbes)</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바이어·수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국가 간 내륙운송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나, 한국으로부터의 컨테이너 배송이 약 2~3주 지연 중</li> <li>- 식당 영업 중단으로 한국식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11.29(목)부터 영업 재개(실내 허용인원 제한)</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EU 기타</b></p>	<p>□ 주요국 동향 및 조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시행했던 각국 봉쇄조치 점진적 완화(검토)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코(11.29~), 영국(12.2~), 오스트리아(12.7~) 등</li> <li>- 독일은 12.23~1.1 10인까지 모임 허용, 그러나 현재의 부분봉쇄(식당 및 오락시설 영업 중단 등)가 내년 봄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li> <li>- 이탈리아는 12.3까지 시행 중인 도시 간 이동제한 조치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li> </ul> </li> <li>○ 프랑스는 11.24(화) 대통령 TV 담화를 통해 봉쇄조치 단계별 해제계획(안) 발표</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 11.28~) 이동 증명서 지참 유지, 이동 가능거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책, 야외운동 시 1일 1회, 집 반경 20km, 최대 3시간 외출가능</li> <li>- 상업시설, 홈서비스 영업재개(21시까지 영업가능)</li> </ul> </li>   <li>○ (2단계 : 12.15~) 이동제한조치 해제, 야간통금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확진자 5,000명 미만 시 2단계 완화조치 시행</li> <li>- 10.30부터 시행되었던 이동제한조치는 해제하고 야간통금(21~7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크리스마스 및 연말 연휴(12.24, 12.31)는 야간통금 일시해제</li> <li>** 크리스마스 연휴는 도시 간 이동, 가족모임 허용</li> </ul> </li> <li>- 보건규정 관리·감독 하 영화관, 극장, 박물관 등 재개방</li> </ul> </li>   <li>○ (3단계 : 1.20~) 야간 통금시간 단축, 레스토랑 영업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관련 수치가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 3단계 완화조치 시행</li> <li>- 야간통금 시간 단축(22시~)</li> <li>- 10.30부터 영업 중단 중*인 <b>레스토랑과 카페는 1.20 이후 재 영업 허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는 배달, 포장영업만 허용 중</li> </ul> </li> </ul> </li> </ul>
싱가포르	농식품 수출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운임 및 농가 공급가 상승으로 딸기 수출가격 상승 및 출하 지연</li> </ul>
	유통·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 불가로 본격적인 방학기간으로 접어든 11월부터 현지 소비자들의 레스토랑, 카페 등 외식 소비 확대</li> </ul>
호주	유통·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축제 역대급 규모 예상(11.2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인한 보복 소비 및 온라인 소비 확대에 힘입어 역대 최대 판매 기록 전망</li> </ul> </li> </ul>

## 2. 통관 · 검역 이슈

국가	이슈내용				
중국	○ 중국 주요 지역해관 냉장냉동식품 수입통관현황(첨부1 참고)				
	지역해관		냉장냉동식품 수입가능 여부	냉장냉동식품 핵산검사 여부 (바이러스 대상 의견조사)	냉장냉동식품 통관 소요 시간
	베이징 (北京)	공항	불가	-	-
	톈진 (天津)	공항	불가	-	-
		항구	불가	-	-
	상하이 (上海)	공항	가능	실시 (샘플링 비율 : 약 100%)	현재 추정 불가
		항구	가능	실시 (샘플링 비율 : 약 50%)	2~3일 *입항 후 하선에 약 5일 소요
	광저우 (广州)	공항	가능	미실시	3~4일
		항구	가능	미실시	3~4일
	칭다오 (靑島)	항구	가능	실시 (샘플링 비율 : 약 100%)	3~4주 이상
웨이하이 (威海)	항구	가능	실시 (샘플링 비율 : 약 100%)	2~3주 이상	
스다오 (石島)	항구	가능	실시 (샘플링 비율 : 약 100%)	2~3주 이상	
미국	○ 텐진 해관 수입업무 중단으로 통관보류 되었던 파프리카 물량 통관 완료(11.21,토)				
	○ 코로나19 대응 위생관리체계 보완에 대한 중국 측의 요구로 검역본부에서 파프리카 선별장(15개소)에 대한 영상자료 촬영 후 중국에 제출하였으나, 검역 재개시기 미확정				
말련	○ 코로나19로 항만청 통관 업무 관리 인원(하역 및 인스펙션 요원 등)이 평상시보다 30% 축소되며 배가 항만에 도착하여도 1-2주 통관 지연 지속				
	○ 11월 말부터 말련 내 수입항 혼잡(코로나 감염 등의 이슈가 아닌 물동량 증가에 따른 단순 혼잡)으로, 평소 대비 통관에 1~2일 더 소요되며 12월에도 이와 같은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수입업체)				

(첨부1)

## 중국 주요 지역해관 냉장냉동식품 수입통관 현황` 20.11.30

- 상하이 푸둥공항 근로자 CV19 확진 및 확산
  - 상하이 푸둥(浦东)공항에서 11월 22일 해외발 항공기 컨테이너 장치를 통해 공항 근로자 2인 확진 판정(30일까지 확진자 총 7명)
  - 상하이 푸둥공항 관계자 총 17,719명에 대해 긴급 핵산검사 진행
- 상하이 푸둥공항 수입화물 통관 지연 발생
  - 상하이 푸둥(浦东)공항 근로자 및 관계자 7명 CV19 확진 및 핵산검사 진행으로 인한 푸둥공항 물류업무 마비로 수입화물 통관 지연 발생
  -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푸둥공항 통관 지연 및 불확실성 우려하여 상하이 푸둥공항 경유하는 냉장냉동식품 수입 업무 잠정 중단한 상황
- 상하이 항구는 수입화물 통관은 차질 없으나 입항 후 하선에 4일 소요
  - 상하이 항구의 수입산 냉장냉동식품 대상 핵산 검사 및 소독 실시로 항구 화물 적재 포화되어 입항 후 하선에 약 4일 소요(기존 1일 이내), 단 지난주에 비해 핵산검사 샘플링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통관 소요 시간 및 입항 후 하선 소요기간이 지난주 대비 감소하는 추세
  - ※ 통관 소요시간 : (지난주)3~5일→(현재)2~3일, 하선 소요시간 : (지난주)약 7일→(현재)약 5일

### < 중국 주요 지역해관 냉장냉동식품 수입통관 현황 >

지역해관		냉장냉동식품 수입가능 여부	냉장냉동식품 핵산검사 여부 (바이어 대상 의견조사)	냉장냉동식품 통관 소요 시간
베이징 (北京)	공항	불가	-	-
톈진 (天津)	공항	불가	-	-
	항구	불가	-	-
상하이 (上海)	공항	가능	실시 (샘플링 비율 : 약 100%)	현재 추정 불가
	항구	가능	실시 (샘플링 비율 : 약 50%)	2~3일 *입항 후 하선에 약 5일 소요
광저우 (广州)	공항	가능	미실시	3~4일
	항구	가능	미실시	3~4일
칭다오 (靑島)	항구	가능	실시 (샘플링 비율 : 약 100%)	3~4주 이상
웨이하이 (威海)	항구	가능	실시 (샘플링 비율 : 약 100%)	2~3주 이상
스다오 (石島)	항구	가능	실시 (샘플링 비율 : 약 100%)	2~3주 이상

- ※ 통관시 검사 : 수입신고번호에 해당되는 컨테이너별 검사 비율(샘플 채취)
- ※ 광저우는 핵산검사는 미실시하나, 검역시 무작위 샘플링 검사비율 강화(80% 수준)
- ※ 상온 보관 식품은 현재 중국 지역해관의 검역 강화 대상이 아님